

2001



자원봉사자와 탈북 아동·청소년이 함께 '하나되는 나들이'를 3월에는 경복궁에서, 5월에는 에버랜드에서 진행하였다.
NKHR organizes "Becoming One" outings for NK resettler youth and volunteers at Gyeongbok Palace in March and at Everland in May.



계절형 대안학교인 탈북청소년을 위한 제1회 한겨레 계절(여름) 학교가 처음으로 열리는 날 언론과 현직 교사 등 많은 분들의 관심 속에 8월 3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21일간 진행되었다. 8월 3-23일.

With great anticipation from media and educators alike, the 1st Hangyoreh School, designed to provide educational opportunities to North Korean youths, opened with an entrance ceremony on 3 August. The Summer School was in session for 21 days, from 3-23 August.



6월 28일 본회를 방문한 미국 민주주의재단의 칼 거쉬먼 회장(가운데).
The president of NED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Carl Gershman (middle) visits NKHR on 28 June.

탈북청소년을 위한 제1회 한겨레 계절(여름)학교에서 우등상을 받은 여학생의 소감 중
 제가 여기서 배운 것은, 친구들과 사귀는 것과 또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여기 한국에 와서도 세상에는 나쁜 사람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믿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름학교에 와서 저는 제가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은 세상이 제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반대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Reflections from an exemplary student at the 1st Hangyoreh Summer School:

“While studying here, I learned how to make friends. I also learned that I should always be grateful. Looking back, even after I came to South Korea, I thought that there were only bad people in the world. I could not trust people. But while I was at this school, I realized that I was wrong. Actually, the world is the total opposite of what I thought.”



롤링페이퍼를 작성하고 있는 학생들.
 Students compose a memory book.



한겨레 계절학교의 삼인방. 왼쪽부터 박일권 자원봉사자, 이기찬 간사, 김재욱 인턴.
 From left: Volunteer Il-kwon Park, Program officer Ki-chan Lee and intern Jae-wook Kim.



학생들과 함께하는 전병현 선생.
 Vice-principal Byung-hyun Jeon with students.



관악산 정상에서.
 On the peak of Mt. Kwan-ak.



탈북동포와 함께하는 한겨레 관악산 산행에 탈북민과 자원봉사자 100여 명 참가. 5월 1일.
 Mt. Kwan-Ak hiking trip with 100 volunteers and North Korean resettlers takes place on 1 May.



제3회 탈북동포돕기 대학(원)생 자원봉사자 수련회 포스터.
 조의환 씨가 디자인했다.
 Poster of the 3rd Training Camp for Volunteers, as designed by Eui-hwan Cho.



탈북민들이 한국사회에 정착하는 어려운 과정을 역할극에 담고 있는 참가학생들.
 Students perform a play about North Korean resettlers in South Korean society.



접수를 맡고 있는 자원봉사자들.
 Volunteers at the street campaign.



한겨레 여름학교 학생들의 역사교육을 위한 백제문화유산탐방.
8월 14-16일.
Hangyoreh Summer School visits historic sites of the Baekje Kingdom on 14-16 August.



남북 청소년들이 함께 어울려 놀이기구를 즐기는 모습.
Fun at the amusement park.



남북 청소년들이 조를 짜서 놀이동산을 가기 위해 의논하는 모습.
Students receive group assignments at the amusement park.

2001년 여름 광장중학교에서 진행한 홈스테이. 홈스테이를 마치고 기념사진을 남겼다.
A Homestay program held in the summer of 2001 brings together Gwangjang Middle School students and North Korean youth. Homestay participants.





탈북동포와 함께하는 자원봉사자 대회에 11개 단체 300여 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11월 2일.
On 2 November, a volunteering convention for North Korean resettlers is held with the participation of 11 organizations and around 300 people.



전북 원광대에서 진행된 북한인권실태 알리기 캠페인. 왼쪽부터 유진선 간사, 이기찬 간사, 박일권 자원봉사자.
NKHR holds a street campaign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at Wonkwang University, Jeonbuk Province. From left: Program Officers Jin-seon Yu and Ki-chan Lee, and Volunteer Il-kwan Park



명동에서 시민연합의 활동을 알리는 거리 캠페인.
NKHR holds a street campaign in Myeongdong to raise awareness of its activities.



부스 설치를 위해 작업 중인 박일권 자원봉사자.
Volunteer Il-kwan Park hangs a banner.



학술토론회에서 발표와 토론하는 최의철 선임연구원(왼쪽),
김유남 교수(가운데), 제성호 교수(오른쪽).

Senior Researcher Eui-chul Choi (left), Professor
Yu-nam Kim (middle), and Professor Sung-ho Jhe (right)
present and participate in discussions at the symposium.



학술토론회에서 납북될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는 납북 귀환자 이재근 씨.
At the Academic Symposium,
Jae-geun Lee describes the
circumstances of his abduction by
North Korea.



학술토론회에서 질문하는 백승목 회원.
Member Seung-mok Baek asks a
question at the Academic Symposium.